

76. 진달래꽃 -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뺏고 가지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성격 : 서정적, 전통적, 민요적

제재 : 이별

주제 : 이별의 정한

표현

- 7.5조 3음보의 민요조 운율 사용
- 반어적 표현과 경어체를 사용

짜임

- I. 사랑의 체념을 통한 이별의 정한
- II.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
- III. 원망을 초극한 고귀한 사랑
- IV. 인고의 의지로 이별의 정한을 극복

77.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로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시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음으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 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 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시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원갓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서릴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성격 : 상징적, 명상적, 산문적

제재 : 당신(임)

주제 : 식민지 현실에 대한 거부와 참된 삶 모색

표현

- 부정적 현실 인식을 토대로 '당신'의 절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짜임

I. 절망적 현실 인식

II. 당신의 존재의 확인 계기

III. 절망 속에서의 깨달음

78.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
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
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은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
조차 가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
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
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
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
기겠네.

성격 : 낭만적, 상징적, 저항적

제재 : 봄의 들판

주제 : 국권 회복에의 갈망

표현

- 상징법과 비유법을 많이 사용
- 걱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토로

짜임

I.국토 상실의 현실

II.봄을 맞은 감회

III.국토의 봄 풍경

IV.방황과 갈등

V.국토회복의 열망

79. 유리창 1 - 정지용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성격 : 애상적, 감각적, 회화적

제재 : 유리창

주제 :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표현

-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대위법을 통한 감정의 절제를 드러내고 있다.

짜임

I. 유리창에 어린 아이의 영상

II. 창 밖에 비치는 밤의 영상

III. 외롭고 황홀한 심사

IV. 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

80. 꽃뎀불 - 신석정

태양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릇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城)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
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뎀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성격 : 상징적, 서술적, 독백적, 이지적

제재 : 꽃뎀불

주제 : 광복의 기쁨과 새로운 국가 수립에
대한 염원

표현

- 반복법의 사용으로 표현효과 증대
-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
-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로 시상 전개

짜임

I. 일제하의 독립 투쟁

II. 독립을 위한 노력

III. 일제시대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IV. 일제 식민지 시대가 지나감

V.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한 기대

81. 간 - 윤동주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山中)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들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원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龍宮)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멧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沈澱)하는 프로메테우스.

성격 : 저항적, 의지적, 우의적, 상징적

제재 : 간

주제 : 고난 극복의 의지

표현

- 시적 화자의 의지를 종결어미로 드러내고 있다.

- 설화와 신화를 시적 상상력 속에 녹여내고 있다.

짜임

I. 환상에서 벗어남

II. 양심과 자기 존엄성의 회복

III. 정신적 자아 수호 의지

IV. 육체 희생을 통한 정신의 고양

V. 현실적 유혹 거부

VI. 고난의 인고

82. 광야 -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성격 : 의지적, 상징적, 남성적, 회구적, 저항적

제재 : 광야

주제 : 현실 극복 및 미래 지향적 의지

표현

-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흐름에 따른 시상 구조

- 종결어미 ‘-(리)라’를 사용하여 의지적 태도 강조

짜임

I.과거의 광야 (광야의 웅대한 모습)

II.현재의 광야 (암울한 현실과 자기 희생 의지)

III.미래의 광야 (미래에 대한 기다림과 희구)

83. 깃발 - 유치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理念)의 깃대 끝에
애수(哀愁)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답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단 줄을 안 그는.

성격 : 상징적, 낭만적, 역동적

제재 : 깃발

주제 :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 및 비애
표현

- 대상이 지닌 역동적 이미지를 살 잘려 표현

- 색채 대비를 통한 선명한 인상 부각

-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추상적이고 관념적
대상을 비유

짜임

I.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갈망

II. 도달할 수 없는 안타까움

III. 좌절과 비애

84.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성격 : 풍자적, 낭만적, 현실 비판적, 냉소적

제재 : 새, 애국가

주제 : 암울한 현실의 삶에 대한 좌절감

표현

- '새'와 '우리'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냈다.

- 의성어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보여 준다.

짜임

I.애국가 경청(현실)

II.이상향을 향한 새들의 비상(이상)

III.이상의 추구하고 좌절(현실)

85. 나비의 여행 - 정한모

아기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睡眠)의 강(江)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記憶)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날으다가
깜깜한 절벽(絶壁),
헤어날 수 없는 미로(迷路)에 부딪히곤
까무라쳐 돌아온다.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아비규환하는 화약(火藥) 냄새 소용돌이,
전쟁(戰爭)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恐怖)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 버
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해후(邂逅)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焦燥)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꿈길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촉촉이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성격 : 주지적, 상징적, 감각적

제재 : 아기의 꿈

주제 : 아기의 꿈 속 체험을 통한 휴머니즘
추구

표현

- 꿈과 현실의 교차적 전개

- 떠남 -> 시련 -> 귀환의 서사적 구조

짜임

I.아가의 꿈속 여행과 좌절

II.아가가 꿈속에서 보았을 전쟁의 참상

III.꿈길에서 돌아온 아기에 대한 위로

86. 농무 - 신경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성격 : 현실 참여적, 비판적, 사실적, 묘사적

제재 : 농무

주제 : 농민들의 한과 고뇌

표현

- 일상 언어를 통해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

- 이야기 형식을 도입 서사적인 진행.

짜임

I. 소외된 농민의 삶과 울분(1~6행)

II. 공동체의 전통이 붕괴된 농촌 현실(7~10행)

III. 농촌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

IV. 농민의 울분과 신명